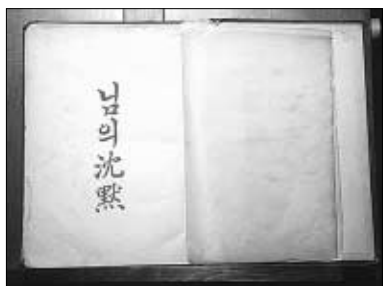


◇지난 9월 30일 만해기념관 전보사 관장(제일 왼쪽)이 관람객들에게 만해 스님의 시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1926년 5월 20일 회동서관이 발간한 <님의 침묵> 초판본.



◇1934년 한성도서주식회사 발행본.



◇판본마다 다른 시어를 정리하기 위해 민중사가 펴낸 정본판(1990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해 스님의 시 '님의 침묵'. 세월을 따라 표기법은 변했지만 감동은 그대로다.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의 유일한 시집인 <님의 침묵> 초판본을 비롯, 130여 종의 판본을 선보이는 <님의 침묵> 판본 특별기획전이 10월 29일까지 경기도 광주 만해기념관(관장 전보사)에서 열린다. 1996년 본사와 책방 여시이문의 창간·개점 1주년 기념 '만해 스님 <님의 침묵> 판본전'에서 초간본을 비롯한 82종이 선보인 이래 <님의 침묵>의 판본이 대규모로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님의 침묵입니다 아 사랑하나는님의 침묵입니다 푸른산빛을쳐치고 단풍나무를향하여아난 적은길을 거러서 참여멀치고 있습니다"

('님의 침묵' 1926년 회동서관 발행 초판본)

국어 표기법 · 책 디자인 · 제책 등

'님의 침묵' 변천 한눈에

'판본특별전' 29일까지 경기 광주 만해기념관서

그동안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초판본은 맞춤법통일안(1934년)이 작성되기 전인 1926년 5월 20일 회동서관이 발간한 것으로, 만해 스님 특유의 조어와 방언이 섞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시어를 말의 장단과 고저에 따라 띄어쓰기한 점이 눈에 띈다. 전 판장이 소장하고 있는 초판본 첫 페이지에는 초기(1929년)에 이 책을 소장했던 이가 그린 것으로 보이는 우리나라 지도와 무궁화 꽃이 새겨져 있다. 당시, 일제에 의해 급서로 묶여 제대로 배포되지 못했던 이 시집이 일반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읽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광복 후 출판시장이 정비되면서 한성도서 주식회사에서 펴낸 <님의 침묵>(1950년 4월)에는 전 시 판본 중 유일하게 만해 스님의 사진이 담겨 있다. 60-70년대에는 다양한 판본이 선보이게 되는데, 판본마다 다른 시어를 정리하기 위해 민

중사에서 펴낸 정본판(1990년 12월)은 시의 원전 비평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후 문고본 발간이 활발했던 70년대와 시낭송 테이프와 시가 적힌 팬시용품들이 등장하는 80-90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대표적인 판본을 정리한 이번 전시에서는 국어표기법의 변

천은 물론, 책 디자인의 흐름과 제책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님의 침묵>은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 번역·발간됐다. 외국 판본으로는 미국 하와이대 판본(1974년)과 '님'을 단순하게 'Love' 또는 'Lover'로 번역했던 다른 외국어판과 달리

'님(Nim)'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님'에 대한 5쪽 분량의 주석을 단 프랑스판(Le Silence De Nim, 1996년)도 관심을 모은다. 이 밖에도 전시회에서는 만해 스님이 머물렀던 백담사에서 <님의 침묵>의 산실 오세암에 이르는 30리 풍광을 담은 '무강오세암도(無疆五歲庵圖)'(야승 이원자 화백)와 20편의 시와 그림을 엮은 시화詩畵도 볼 수 있다.

20여 년 동안 체계적인 현책방과 인사등의 고서점을 뒤지며 판본을 수집해 온 전 관장은 "조지훈 시인은 <님의 침묵> 한권 만으로도 만해 스님의 시는 현대시의 고전이 되었다"고 평가했다"며 "80여년의 세월동안 시공을 초월해 끊이지 않고 읽히는 만해 스님의 시는 문학적인 향기와 사상적인 깊이를 두루 포괄하는 위대한 유산이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 <묘법연화경 사경 ①~④> (혜능 스님 엮음, 부다가야, 각 권 5천5백원) = <묘법연화경>이 해인총림 율원장 혜능 스님에 의해 사경집으로 다시 태어났다. <묘법연화경 사경>은 각 품의 계승을 따로 모은 책이다. 혜능 스님은 "사경은 부처님의 법신사리인 경전을 옮겨 쓰면서 부처님 말씀을 새기고 익혀 실천하는 수행 방법의 하나"라며 "특히 <묘법연화경>은 각 품마다 요약의 계승으로 거듭 설명해 장엄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최고의 경전이다"고 말한다.

■ <의역동원 역경> (주춘재 글·그림, 김남일·강태의 옮김, 청홍, 1만2천원) = 만화로 읽는 중국전통문화총서 1권 <의역동원 역경>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철학서라는 <역경>을 만화 형식으로 쉽게 풀어쓴 책이다. 제목 '의역동원(醫易同源)'은 역경과 한의학의 양생학이 자연을 하나로 보는 '천인합일(天人合一)' 사상을 근원으로 탄생했음을 의미한다.

■ <숫대문학> 51호 (한국장예인문인협회, 숫대문학, 6천원) = 통권 51호를 맞는 숫대문학 2003년 가을호가 나왔다. '인기작가론'에는 무협소설가 김환철 씨와 연예칼럼니스트 백현덕 씨를 담았고, '명사대담' 코너에는 작가 이희수와 숫대문학 방귀회 대표의 대담을 실었다.

격변기 불교의 생존 화두는?

'고려후기·조선초 불교사 연구'
황인규 지음
혜인 / 3만원

고려왕조가 조선왕조로 교체되는 14세기는 기존의 권문세족을 대신해 무신세력과 신진사대부 세력이 전면에 등장하고, 정신적 바탕을 이루었던 불교가 유교에 자리를 내주는 사상적 전환기다. 따라서 여말선초는 우리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정립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 시대 불교사 연구는 태고보우, 백운경한, 나옹혜근과 공민왕대 집권세력이었던 신돈, 태조 이성계의 왕사 무학대사 등 고승 개인의 사상과 활동에 대한 연구에 치중되어 왔다.

<고려후기·조선초 불교사 연구>는 그동안 고려말 조선초의 불교사 연구에 전착해 온 황인규(동국대 강사) 씨가 당시 시대적·사상적 전회기에 불교계가 어떻게 대응했고, 이후 조선왕조의 불교탄압과 성리학적 질서 속에서 어떤 '화두'로 생존을 모색했는지를 다룬 글을 모은 책이다.

지은이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립하기 위해서는 고려후기, 조선초 불교사를 정치 및 사회적 측면이 아닌 불교계의 주체적 전개라는 측면에서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세살부터 시작된 '특별한 삶'

'달라이 라마 자서전'
달라이 라마 지음 / 심재홍 옮김
정신세계사 / 1만5천원

1935년 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라모 툰돌. '소원을 성취시켜 주는 여신'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소년은 티베트 불교의 전통에 따라 세살 무렵 달라이 라마의 화신으로 인정받아 '특별한 삶'에 들어서게 된다.

중국인 티베트를 침공한 1950년 열다섯의 나이로 통치자의 전권을 위임받은 제14대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59년 결국 인도로 망명한다. 인도 다람살라에 임시정부를 수립한 그는 반세기에 가까운 망명생활을 하면서 티베트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8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된다.

달라이 라마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도 높아짐에 따라 그의 유일한 자서전이 재출간됐다. <달라이 라마 자서전>은 달라이 라마가 90년 직접 영어로 작성한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91년 <유배된 자유>(정신세계사)란 제목으로 소개된 바 있다. 이 책은 이후 10여년이 흐르는 동안 절판됐으며, 책을 옮긴 심재홍 교수(서울대)가 지난해 달라이 라마를 인터뷰한 내용을 부록으로 덧붙여 새롭게 선보였다.

여수령 기자

금주의 베스트셀서 10

책방 여시이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중일지	현희 스님	지영사
2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3	영원한 대자유인	강정진	공리
4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	비키 매킨지	김영사
5	들숨남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대림 스님	초기불현연구원
6	시공불교사전	곽철환	시공사
7	살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	해봉 거사	불광
8	영원한 대자유인을 읽고	청봉 스님	경서원
9	파도마 삼바바	백이제	민음사
10	사람	서용 스님	고요아침

도서 안내: (02) 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이문 전화: (02) 737-0695

법정스님의 무소유

山寺에 심은 뜻은

이청담 지음

참회와 참선으로 가득찬 현묘한 법문으로 너무나 인간적인 영혼의 소리!

인생은 태어나서 육체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잠시 의 나그네길이다. 육신의 길은 일회적(一回的)이다. 이러한 사상의 핵이 담긴 스님의 마음표현은 독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며 감동이런 경신의 경지를 마련해 준다.

● 문고판 | 값 2,000원

불조직지 심체요절

佛祖直指心體要節
백운선사 | 박문열 옮김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선도(禪道)들에게 선도(禪道)와 선관(禪觀)의 안목은 물론 선종(禪宗)을 전통(傳統)하여 법맥을 계승해 하기 위한 책! 이 책은 우리나라의 학승(學僧)들이 대교과(大敎科)를 마치고 수의과(隨意科)에서 공부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학습서다.

● 신국판 | 값 9,000원

법화경 이야기

法華經
박해경 지음

반어(般若)의 공(空)을 활성화 시킨 반어의 공(說法實相)

법화경이 천하 제인의 가르침으로 평가되는 까닭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밝힌 경전이기 때문이다. 법화경부경 삼십이품의 인접에 주력하며 각품의 요점과 꼭 알아 두어야 할 대목들을 현대적 감각에 알맞도록 해설한 국립중앙도서관 추천도서이다.

● 신국판 | 값 7,000원

백운화상 어록

白雲和尚 語錄
석찬선사 | 박문열 옮김

스승 백운화상을 향한 제자 석찬선사(釋璨禪師)의 애절한 절규!

암울한 고려 말기의 어둠을 밝히는 외로운 등불과도 같고, 더위를 식혀 주는 신선한 바람과도 같은 독보적인 선종(禪宗) 중에서 후세의 선도(禪道)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송(宋), 찬(禪), 명(明), 시(詩), 계(偈) 등을 집록한 정량서다.

● 신국판 | 값 10,000원

수타니파타

Sutta-nipata
김운화 옮김

불경 중에서도 가장 초기에 이루어진 경전으로 시와 글귀로 이루어진 구송문학의 백미!

'수타'는 경(經) '니파타'는 집성함을 의미한다. 부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의해서 운문체식으로 구성된 오다가 팔리어로 정착해 경전의 모습을 갖추었다. '수타니파타'가 태어났다. 부처님의 첫 말씀으로 육성에 가까운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책이다.

● 신국판 | 값 6,000원

3판 60쇄 분 1만 부의 판매금 전액을 '범우출판장학금'으로 출연(出捐)합니다!
▶ 범우문고 1판 1,2,3쇄 분(정가 280원)을 보내 주시면 양장본(값 6,000원)과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 4×6변형 양장본 | 값 6,000원